



## 서산시 “한 책 읽기 운동” -『문제아』 낭독회에서 만나 본 이익선, 정현경, 박시준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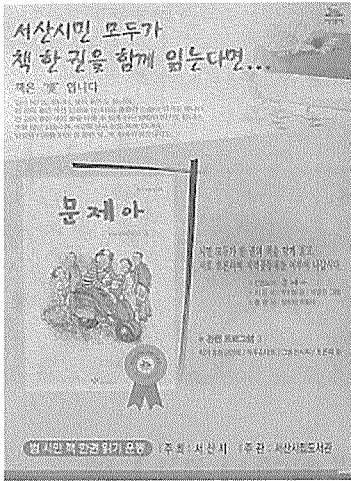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2003년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서산시와 함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그 당시 서산시에서는 서산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이라는 주제로 창작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저자강연회, 원화전시회, 영화상영, 각 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독서 운동을 이끌었다. 서산시는 2004년 전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함께 읽을 책으로 창작 동화집 박기범의 『문제아』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진행된 다양한 행사 중에는 현직 아나운서들이 직접 서산 시내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낭독회'가 있었다. 사회 유명인사들의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의 좋은 계기가 될만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익선, 정현경, 박시준 아나운서를 도서관문화편집팀이 만나보았다. ■ 편집자 주

**Q** 세 분 모두 여자 분이시네요. 이름만 보고는 박시준 아나운서는 남자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세 분 모두 방송 활동으로 많이 바쁘실텐데 서산에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A** 이익선 기상캐스터 : 저희 3명 모두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라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 낭독회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해 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현경 아나운서 :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마나 열심히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던지 저도 신이 나서 저절로 감정이 풍부해져더라고요. 거의 동화구연 수준이었어요.(모두 웃음)

interview



◀서산시 '한 책 읽기 운동' 홍보포스터

박시준 기상캐스터 : 저는 두 학교 모두 중학교였는데, 사춘기 학생들에게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 아이가 집안 사정이 어려웠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심정이 읽혀질 때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아이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이랄까, 반항 심리 같은 것이 느껴져 순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Q** 이익선 아나운서께서는 낭독 중에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낭독자가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후 들려줄 때 낭독의 효과가 더욱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A** 이익선 : 제가 예전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 서산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도서평론가 이권우 씨가 고정 출연하셨지요. 그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정현경 : 저나 박시준 아나운서도 평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좋은 계기가 없을까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익선 선배의 소개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 방송경력 15년. KBS 1TV '뉴스광장' 기상정보 코너를 14년간 진행, 국내 첫 여성 기상캐스터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KBS 1TV 오전 '9시 30분 뉴스' 기상정보 코너, SkyLife 채널 100번 '디지털포커스'를 진행하고 있다.)

**Q** 이번 낭독회에 참가한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아 행사를 준비한 도서관측에서 무척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A** 이익선 : 사실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낭독회 전날까지 몇 번이고 저희와 통화하며 진행방법을 의논하시던 도서관 사서 선생님, 높은 경쟁을 뚫고 낭독회를 유치(?)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시고자 이리저리 애쓰시던 학교 선생님들, 맛있는 점심식사와 더불어 과분할 정도로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서산 시청 관계자 분들 등 지역 주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산지역 '동화읽는 모임'에서는 낭독회가 열렸던 같은 날을 '책 읽는 날'로 정하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독서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만 주최 측 입장으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낭독의 효과를 생각해 너무 많은 인원은 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시준 : 제가 갔던 학교 중에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책을 완전히 읽어오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시는 등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 경험으로 는 아이들이 책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낭독의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현경 : 맞아요. 저도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을 이리 저리 빼며 저를 보고 중간중간 손을 들며 "선생님 그 부분은 왜 그런거죠?" 하며 묻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고3 학생들은 확실히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낭독보다도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정현경 : 방송경력 8년. 'EBS 일요초청특강', '문화 문화인' 과 수능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맡아 왔으며, 현재는 EBS '일과 사람들'을 진행하고 있다.〉



〈박시준 : 방송경력 2년. KBS 1TV '뉴스광장' 및 KBS 2TV '지추촌 뉴스' 기상캐스터. KBS 1TV '남북의 창' 진행〉

**Q** 처음 진행한 프로그램이라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세련된 낭독회가 마련될 것 같은데, 계속 참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A** 이익선 : 물론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시기의 독서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소 사회 인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는 언제고 참석하고 싶은 맘이 들 정도의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다만 방송 스케줄 관계로 먼 곳까지 가보지 못하는 것만 잘 조정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interview



◀ 인터뷰 후 기념 사진  
(왼쪽부터 정현경, 이익선, 박시준 아나운서)

**Q** 평소 도서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각자의 독서 스타일은 어떠하  
신지요?

**A** 이익선 : 독서 스타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책이 좋아서 책을 읽는 사람, 둘째는 필요에 의해서 즉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쫓아 가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 셋째는 아무 책도 읽지 않는 사람. 그 중 저는 두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책 읽기를 즐겨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책 읽기를 강요하던 오빠가 있어 많이 시달렸지요. 그 당시는 무척 괴로웠는데 시험까지 보며 억지로 외웠던 책 내용들이 아나운서 시절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새삼 어린 시절 책 읽기의 중요성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 학생들 하고 전까지는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 집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조금 오래된 도서관이라 내부 인테리어가 낡은 점, 도서관 이용시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낯설다라는. 그래서 조금 더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시준 :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시작했다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선뜻 시작을 못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혈액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는 도서관이 없고, 예전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이용했었는데 이익선 선배의 말처럼 도서관 이용하기가 조금은 어렵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경 : 저는 위로 오빠가 1명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빠 독서교육 하다 그만 지쳐 제 차례가 되니 힘들어 포기하시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책을 많이 못 읽었지요.(모두 웃음) 그래도 결혼 후에 침대 머리맡에 '탈무드' '손자병법' 같은 종류의 책을 항상 놓아두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전에 조금씩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Q** 최근 안성기 조수미 씨 등이 독서포스터 모델로 등장하고 '책 읽는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있었던 행사에 KBS 아나운서들이 참여하는 등 사회 유명인사들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익선 :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주도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한 예로 꼽고 싶습니다. 전직 신문기자이기도 한 CBS 방송 진행자인 고도원 씨가 독서하며 밑줄 그어 놓았던 인상적인 글귀에 짧은 단상을 덧붙여 만든 글을 주위 몇몇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배달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30만 명이 매일 아침편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도 이곳에서 추천하는 책은 믿고 구입하는 편입니다. 독서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요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이끌어 내는 도서관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경·박시준 : 맞아요. 저희 아나운서 동료들 중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들려줄 책을 녹음해 주기도 하는 등, 좋은 프로그램만 기획된다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 의외로 많아요.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 시간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 이익선 아나운서가 읽어 준 책

○○초등학교 ○학년 ○반 김○○

10월 22일 금요일 5교시에 오셔서 문제어의 일부분인 '어진이'를 읽어 주셨다. 처음에는 어진이가 동물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끝부분에서 새끼라는 말에 조금 동물일 것이라고 짐작이 갔는데 강아지라는 말을 듣고 짐작이 들어맞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익선 아나운서가 책을 읽어 주니까 책이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나는 책을 너무 싫어해 거의 수준 낮은 책만 골라 읽었다. 그런데 금요일날 책에는 지식과 마음의 양식이 있어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문제어'를 빌리고 싶었다. 하지만 연체 2일이 있어 빌리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이틀이 지나 책을 빌릴 수 있으면 '문제어' 책을 꼭 빌려서 이익선 아나운서가 읽어 주셨던 '어진이'를 다시 한번 읽고 싶다. 왜냐하면 어진은 나에게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도사시켜 보고 내용을 잘 모르면 그 뜻을 꼭 알아볼 것이다.

▶▶서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기서판에서

